

이슬람금융(수쿠크) 현황

두바이사무소

2014. 10. 15.

- **[전망]** 수쿠크가 이슬람 금융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, 두바이 및 GCC 국가에서 신규로 추진될 프로젝트의 자금공급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(두바이 상공회의소)
 - 금년 상반기 UAE의 일반채권 및 수쿠크 전체 발행 규모는 약 442억 디르함(약 120억 달러)으로 중동 지역의 약 55% 차지
 - ※ 수쿠크(sukuk) : 이슬람 채권.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므로, 수쿠크는 특정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지급

- 두바이 상공회의소, 이슬람 금융 분석 자료인 'Major Trends in The Global Islamic Economy'(첨부 참조)를 발표
 - (규모) 2013년 기준 전체 이슬람 금융은 1.8조 달러('14년 2조 달러)로 추정되며, 이중 이슬람은행이 80%를 차지하고, 수쿠크는 아직 15%에 불과
 - (지역) 전체 이슬람금융은 말레이시아가 17%, GCC 6개 국가가 36% 차지
 - (발행자) 수쿠크의 주된 발행자는 정부(Sovereign)이며, 기업, 공기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
 - * 2014.6월 현재 수쿠크 발행총액 2,960억 달러 중 국채는 36%(Moody's)
 - (성장) 수쿠크 발행은 2001~13년 간의 누적연평균성장률이 47%에 달함,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수쿠크 발행이 더욱 활발하여 2011년 924억 달러, 2012년에 최고치인 1,375억 달러를 기록하고 2013년 1,197억 달러로 다소 주춤
 - * 2014년에는 영국을 비롯한 홍콩,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비이슬람 국가에서 국채 수쿠크 발행이 활발

- (전망) 향후 10년에 걸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많은 GCC 국가, 특히 두바이에서 수쿠크 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

□ **[샤르자 수쿠크 발행]** UAE의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 지방정부는 2014. 9. 11일 최초의 국채 수쿠크를 성공적으로 발행

- 10년 만기, 3.764% 수익률로 7.5억 달러 규모 발행, 발행금액의 10배 이상(78억 달러)이 응모하여 수쿠크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였으며, 중동 50%, 영국 20%, 유럽 11%, 아시아 14%로 배분
- 조달된 재원은 기존 채무의 재조정 및 도로, 주택 등 인프라 건설에 활용될 예정

* 샤르자 정부의 기존 채무비중은 GDP 대비 6.8%인 15억 달러 규모

□ **[기타 참고사항]** 또한, 두바이 국제금융센터(DIFC)는 기존 채무 재조정 및 금융허브로서의 성장전략 추진을 위해 10월 중 7억 달러 규모의 수쿠크를 신규 발행할 예정

*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는 350개 금융기관을 비롯 1,113개의 관련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국제금융자유지역

- 두바이 정부는 두바이를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해 수쿠크 발행을 촉진하고 있으며, 두바이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0.28~30일 「세계 이슬람경제포럼」을 개최할 예정

첨부 : Major Trends in The Global Islamic Economy.